

대한 양계협회

소식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전면적용 촉구
- 신한국당(가), 다음 정기국회서 의원입
법 추진 약속, 축산농민궐기대회는 잠정
유보키로 -



본회는 지난 1월 25일 개최기로 하였던 배합사료 부가세영세율 전면적용을 위한 축산농민 궐기대회를 다음과 같은 배경과 사유로 유보(무기연기)키로 함에 따라 각 지부·분회 및 양계인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사진은 본회 사무실에서 축산단체장 및 관련인이 참석, 현

안문제를 논의하는 장면)

- 다 음 -

배합사료 부가영세율 전면적용은 100만 양축농가의 오랜 숙원사항이자 대통령의 대농민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업농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토록 함으로써 우리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4개 단체(전국축협운영협의회, 한국낙농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는 연합하여 우리들 생존권적 수호차원에서 1월 25일을 기하여 전국축산인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그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부여당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 17일 면담한 농림수산부의 고위관리는 우리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 주었고, 그 다음날 만난 집권 여당인 신한국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은 금년내로 관련법 개정 절차를 통하여 '97. 1. 1부터는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부측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지만 만약에 정부측의 노력이 미흡할 때는 의원입법으로라도 처리하여 위의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확약하였습니다.

정부측과 집권여당의 그러한 노력과 약속을 믿기 때문에 축산관련 4개 단체연합으로 추진해온 1월 25일의 축산인 궐기대회 개최를 잠정적으로 유보토록 하였지만, 정부여당이 또다시 우리를 실망시킨다고 판단될 때는 지금까지보다 몇 배 더 강한 힘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의지를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금번 대회를 유보(무기연기)키로 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뉴젯슬 사독백신 품질에 따른 건의, 회신

본회는 지난 채란분과위원회시 뉴젯슬 사독백신 품질에 따른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농림수산부에 대책을 건의한 바, 지역별로 품질된 곳이 있지만 제조업체별로는 상당량(표창조)의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어 뉴젯슬 사독백

신을 구입할 수 없을 경우 제조업체에 직접 주문, 구입하도록 회신을 받음에 따라 각 지부, 분회에 이 내용을 통보하였다.

표 '96. 1. 18일 현재 뉴깃슬 사독백신 재고량 현황

제 조 업 체	단 위	재고량	접종가능 수수	비 고
(주)한국미생물연구소 02-424-3415	1000수분	800병	800천수	1996. 1. 17일 검정완료
바이엘코리아(주) 02-222-6600	1000수분	-	-	
(주)중앙기축전염병연구소 042-581-5856	500수분	155	77.5	
	1000수분	3,129	3,129	
독십자수의약품(주) 02-582-8818	1000수분	517	517	
(주)대성미생물연구소 0343-61-0599	1000수분	-	-	50만수 검정중
합 계		4,601	4,523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 위생검사 실시

최근 모소비자 모임과 방송사가 합동으로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정밀검사에 들어감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를 비롯한 축산관련 단체들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각 농가에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가일층 노력해줄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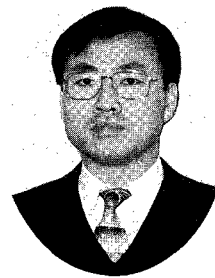
'96년도 시무식 거행

본회는 지난 1월 3일 본회 회의실에서 회장단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병자년 한해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본회 최준구 회장은 신년훈시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국내 양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강화'를 통해 양계인들간의 단결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 강조하고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 등 당면문제들을 협회를 구심점으로 한가지씩 이루어내는 한해가 될 것을 당부했다.

본회 강재명 부장 국무총리상 수상 국내 양계산업 발전에 큰 기여



△강재명 부장

본회 강재명 총무부장이 '95축산시책 유공자로 인정받아 구랍 31일 국가에서 수여하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강부장은 그간 전회원 및 전국양계인의 복리

증진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양계산업의 안정화 기반 구축, 새로운 양계사양기술 보급 등 국내 양계산업 발전 및 본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본회 '96년도 정기총회 개최

오는 28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본회 '96년도 정기총회가 오는 2월 28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전국 각지역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95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결산보고 △'9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1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박승봉)가 지난 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95년 10월부터 병아리 생산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올 한해의 경기는 대체로 좋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지난해처럼 질병 등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작

용할 경우 채란농가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충남 서산에 노계 전문도계장(금강식품)이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에서 지원하는 비축자금으로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가 노계처리에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전국계우회연합회

전국계우회연합회(회장 최준구)가 지난 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95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보고에 이어 '9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가 진행되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감사보고 사항에서는 장기 회비미납 계우회에 대한 조치,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미비, 난가조절위원회에 대한 세부규칙 명시 등을 지적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 난가조절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간의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시장상황을 정확히 파악, 고시에 철저를 기할 것에 의견을 모았다.

종계분과위원회 개최

종계 생산성 저하로 병아리 수급 차질

1월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교석)가 지난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상외로 생산성이 낮은 계군이 많아 병아리가 적게 생산되면서 병아리 가격 상승이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란계의 경우 올 한해 실용계 생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육계는 병아리

생산이 적정수준 이하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북병아리 생산에 대비해 4월부터 잠재력이 크게 늘어 북경기는 예년같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에 주력

1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원악)가 지난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종계의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져 병아리 품귀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병아리 가격상승 등 악재로 인해 농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날씨변화가 심해 환기불량 등에 따른 질병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언론매체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닭고기 항생제 검출문제로 인해 생산농가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96 아틀란타 국제 양계박람회 산업 시찰단 파견

본회는 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조속히 향상시켜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양계인 및 양계산업 관련 종사자 23명으로 구성된 '96아틀란타 국제양계박람회 시찰단을 지난 1월24~30일(6박7일) 기간동안 파견하였다.

본회에서는 닭경제능력검정소 환경택소장이 동행하였다.

(주)선진 신입사원 본회 방문

(주)선진(대표 남대현)은 본협회의 주요역할을 파악하고 업계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지난 30일 7명으로 구성된 신입사원들을 본회에 방문시켜 축산발전의 일익을 담당케하기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본회 가평육계분회

임원개선

본회 가평육계분회(분회장 이의정)는 지난 1월 정기총회를 갖고 분회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임원개선이 있었다.

분회장 : 이의정

부회장 : 권 성, 장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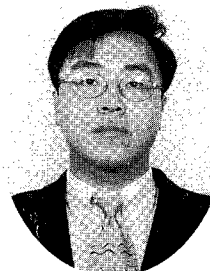
이 사 : 신학수, 한재호, 박창현, 이세중,
김윤행

총 무 : 김광철

감 사 : 최종재, 고광문

신입사원 채용

본회는 편집부에 근무하던 이영오씨가 의원면직됨에 따라 이유희(충북대학교 축산학과 졸업예정)씨를 신입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이유희